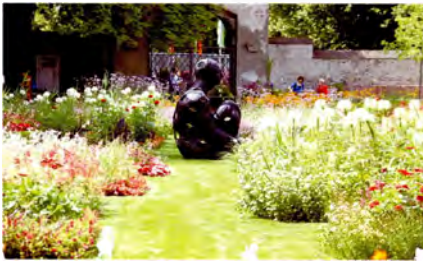




특집 I 세계의 정원

혼합과 혼성의 융복합 식재로 변화하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꽃과 여성이 어우러진 융복합 정원

우리는 요즘 정원이꾸기가 열풍에 가까울 정도로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는 판교나 광고의 단독주택들이 최고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 경기권의 전원주택이나 펜션도 점차 정원이라는 코드가 그 가치를 형성시키고 있다.

많은 전원 주택단지나 단독주택에서 정원의 아름다움과 품격이 그 마을 혹은 단지를 평가하는 기준



정원 한 켠의 일년생과 다년생의 융복합식재

이 되고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잘 꾸여진 단지가 그만큼 시세도 잘 나 오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정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넷'을 통해 10년동안 대한민국의 정원에 대한 물음과 가이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광화문 광장에도 그리고 남산에도 관교에도 또, 전원주택이나 아파트의 작은 화단에도 혼합식재가 기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꽃'은 자체 품종개발은 물론 해외 고품질의 품종을 도입하고 국내 보급에 앞장 서 이제 웬만한 품종은 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품종 다양화를 이루었다. 15년을 해어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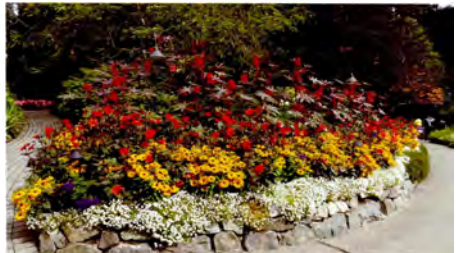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의 정원은 아직도 선진국의 정원 흉내만 내고 있는 현실이고 이도 식물 특색과 품종의 이해가 떨어져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품종간 화색의 배치이나 키의 배치 그리고 화기의 배치, 생리 생태적인 배치까지는 염두도 못내는 게 실정이다. 그러다 '우리꽃'과 몇몇 정원사를 둔 회사들이 한국의 정원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나와 우리꽃의 정원사들은 최근 깊은 고민에 빠졌다. 최근



일년생과 채소 다년생이 어우러진 정원

의 해외 선진 정원의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혼합, 혼성식재에서 벗어나 혼합과 혼성의 융복합 식재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현대식 정원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가 정착하려 하는데 다시 10년의 격차를 한 번에 줄여야 하는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설명



같은 시기에 피어나는 꽃과 초감지재의 융복합 식재



정원의 모든 식물 구성원이 모두 같은 시기에 복합적으로 꽃을 피워내야 한다.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호 품종도 변화 하고 있고 정원의 구조적 소재 또한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혼성식재가 단순히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너지효과를 배가시키는 식재방법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

지금 세계에서 불고 있는 정원의 트렌드는 혼합식재와 혼성식재를 결합한 융복합식재(필자가 우리식으로 표현)는 단순한 군락의 반복과 계절적 생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혼합, 혼성식재의 결합이 아니라 정원의 배식의 모든 구성요소를 융합한 배식의 한 형태를 이룬다.

화색과 키, 화기, 그리고 생리, 생태적 특성을 한

계절에 동시에 구현하는 식재방법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혼합식재는 식물의 개화기간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한 장소에 심어 그들 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매 계절 다른 꽃이 피고 지는 배식 방법이다. 혼성식재는 주로 구근을 많이 이용하는 데 어떤 특정한 계절에 어떤 식물이 화려함을 자랑하고는 휴면에 들어가 생육이 매우 불량한 경우 그 식물과는 다른 계절에 나



관목과 일년생의 복합정원

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을 최소 2종 이상 같은 장소에 심어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는 배식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융복합 식재는 혼합하는 식물들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더욱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지는 배식의 개념과 혼성식재의 경우도 생육기가 다른 식물들을 같은 장소에 심는 것이 아니라 생육기가 같으면 서로 서로 더욱 보완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때문에 1년생, 2년생 다년생 구분이 없고 구근 식물, 채소, 허브 등의 구분이 없이 결합하고 또, 정원의 디스플레이 자체도 함께 적용하는 융합의 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넷'의 복간을 결정하고 실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함이 생긴 것이다.

사실 '우리넷' 10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과 조경발전에 매우 큰 공을 담당했다는 것은 자



행잉비스켓의 배식 형태가 정원배식의 전면으로 등장

타가 공인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빠른 적응력이 발휘되어 우리 정원의 다양성이 웬만큼 진척이 있다고 판단했고 품종 또한 세계적인 품종보급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좀 더 종합적인 잡지가 필요함을 느껴 격월간 '우리넷'의 발행을 중단하고 서점에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실용 정원 잡지 '가든인'(Gardenin, 2013 3월 창간준비호, 공동발행

인 김영재, 박공영,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을 발행하여 1년 6개월을 진행해 오면서 생활속의 정원과 공원과 대형의 정원, 목적의 정원에 '우리넷'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특히 많은 독자들의 요청과 열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원을 생활 속에서 알고 가꾸어보자는 실용 잡지 월간 '가든인(Gardenin)'과는 다른 관점에서 정원과 품종의 가이드



콘테이너 정원배식의 한 예로 융복합식재가 있다.

매거진 격월간 '우리넷'을 확대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후원과 기부 그리고 응원을 요청 드린다.



이리종의 일년생을 이용한 융복합식재



포인트형 독립수로 심어도 좋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붓들레야

이번에 소개할 붓들레야(Buddleja davidii)는 마전과의 식물로 유럽의 정원에서는 조경용소재로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온지는 오래 되었

으나 아직 많은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붓들레야는 꽃의 생김새나 진한 향기가 비슷하고 여름에 꽃이

이 6-9월로 관목성 화목류로는 최장기 개화한다. 꽃이 질 때쯤 꽃이 피는 가지들 제거해주면 더 많은 꽃을 계속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목성 화목류는 봄철 개화가 집중되어 있어 여름 이후

로 꽃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붓들레야의 장점은 무엇보다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하는데 있다. 대부분

의 품종이 내한성이 강해 우리나라 전지역에 적용이 가능하며 꽃이 많아 나비가 많이 모이는 꽃으로도 유명하다.

키는 일반적으로 2-3m정도 자라며 근대 들어서는 약 1.5m정도 자라는 왜성종도 선보이고 있다. 품종에 따라 보라색, 하양색, 분홍색 등 화색이 다양하다. 꼬리처럼 길게 피는 꽃은 이색적이며 요즘의 건축정원 형태에 매우 좋은 관목이다. 철쭉이나 생울타리용 관목의 뒤편에 적용하거나 사면 혹은 펜스나 벽면 앞쪽 등 건물차폐용으로 사용해도 좋다. 또한 대형의 포기는 일반 야생화나 그라스 정원에 포인트식물로 활용가치가 높다. 작은 정원에 나무 한그루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붓들레야가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빠짐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 꽃이 많고 색이 좋아지며 알카리성 토양에 강하며 산성토양에서는 석회를 추가하면 된다. 이른 봄 묵은 가지를 잘라 새로운 튼튼한 가지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블루에서 화이트까지 다양한 화색의 품종을 이용하여 현장에 맞게 적용한다면 미국적이면서 강건하여 여러 조경현장에 아름다운 경관연출이 기대되는 관목이다.



2014년 붓들레야 가을특가판매

붓들레야 *Buddleja davidii* (historically given as *Buddleia* COMMON NAME: Butterfly)

포트 6개(6품종)-5만원 특가 판매

(날개 구매일 경우 개당 만원)

대량구에서 더욱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TEL : 031-712-7009 010-8636-2664

양귀비 지금 파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양귀비 역사

양귀비 전문회사 우리꽃에 문의하십시오.

품목	규격	단가	비고
잉글랜드양귀비 레드	kg	120,000	클린
잉글랜드양귀비 화이트	kg	80,000	노말
잉글랜드양귀비 엑스	kg	120,000	클린
잉글랜드양귀비 믹스	kg	80,000	노말
캘리포니아양귀비 오렌지	kg	80,000	클린
캘리포니아양귀비 오렌지	kg	60,000	노말
캘리포니아양귀비 핑크	kg	150,000	클린
캘리포니아양귀비 화이트	kg	150,000	클린
캘리포니아양귀비 미스텔	kg	300,000	클린
이탈리안양귀비	kg	300,000	클린

전화.031-634- 7990 010-5018-9063

www.uriseed.com 우리꽃



추식구근의 대표식물인 튤립, 수선, 무스카리가 대량적재 혼합식재되어 있는 전경

가을에 식재해야 봄에 효과가 더 좋은 추식구근

추식구근(튤립, 수선 등)은
가을에 심는 소재

추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을에 심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추식구근이라 함은 가을에 심는 구근을 뜻한다. 우리가 이른 봄 가장 빨리 꽃을 맞이할 수 있는 튤립, 수선, 무스카리, 크로커스 등 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봄꽃 구근을 대부분 추식구근이라 한다. 이들 추식구근은 추위에 매우 강해 그 전 해 9월부터 11월까지 얼음이 얼기전에 식재하면 이듬해 아름다운 봄꽃을 선물해주는 식물이다.

이른 꽃이 피기전 추위를 견뎌야 화아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식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전만 해도 우



추세용으로 식재된 다양한 튤립품종들

겨울에 온실에서 재배하여 꽃이 핀 상태로 시장에 출하하게 된 것으로 온실에서 자란 포트묘를 옮겨 심다보니 몸살과 아울러 화기 자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감안하여 '우리꽃'에서는 10여년전(정확하게 말하자면 2003년) '우리넷'을 통해서 추식구근을 가을 현장에 직접 심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한 달이상 관상가치가 지속됨을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조경현장에 봄꽃 소재로 적극적으로 직접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 단순히 절화용, 분화용 소재였던 추식구근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표적인 조경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숙근초(아생화)와 추식구근의 만남 정원에 적용

초기 조경에서의 이용법은 주로 에버랜드, 강원랜드 등의 레저문화단지 또는 지자체 축제현장에 대규모 식재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기존의 잔디밭에 구멍을 뚫어 식재해도 아름다운 봄 경관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본연의 잔디광장으로 임무를 수행할



활엽수림 아래 튤립이 군식되어져 있다



숙근초정원에 추식구근이 혼성식재된 전경

수 있어 개인정원의 잔디밭이나 골프장의 주요 보행로 주변의 잔디밭에 식재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후 '우리꽃'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추식구근을 정원에 적용하였다. 즉 튤립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이른 봄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이 없는 이른 봄 숙근초정원에 잘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에 아생화와 추식구근의 혼성식재를 도입하였다. 기존 정원의 숙근초 사이사이에 튤립, 수선, 무스카리 등 추식구근을 식재하면 4월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아직 꽃이 없는 봄 정원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추식구근이 잘 때를 바름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숙근초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개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혼합식재정원, ARI가든, 활엽수 아래 음지정원 등에 추식구근을 혼성식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추식구근은 정원의 봄꽃 혼성식재 소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추식구근의 공급

· 빠른 주문이 필요한 시기

튤립은 추식구근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수입에 의존하여 10월 중하순경에 국내에 입시에 공급되어진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튤립은 국내에서 이제 조경용 봄꽃소재로 자리를 잡았기에 미리 예약 주문을 해두어야 원하는 품종 및 물량을 수급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신 고객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급처를 찾아 예약주문을 하기 바란다. 튤립에 비해 수선, 무스카리는 사용량대비 공급량은 어느정도 원활하다고 볼 수 있다.

2. 추식구근의 종류

· 추식구근은 대표적으로 튤립을 비롯하여

수선화, 무스카리, 크로커스, 알리움기간티움, 하아신스, 아네모네, 프리틸라리아 등 많은 종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튤립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는 격리재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을에 조경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3. 추식구근의 식재

· 식재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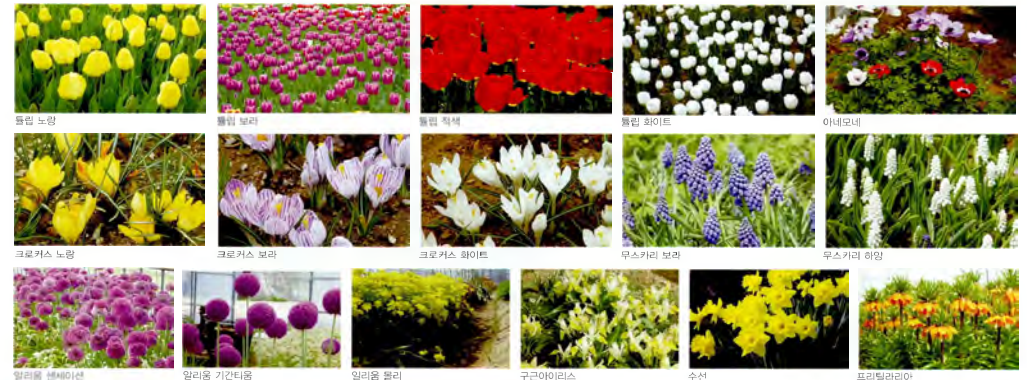
추식구근은 10월에서 11월경에 심는다. 가을에 심는 튤립 구근을 비롯한 추식구근은 겨울의 지온을 필요로 한다. 가능한 서리가 내리기전에 심는 것이 좋다.

· 장소

햇볕이 잘 드는 양지쪽이나 활엽수림 아래 하부식재도 가능하다. 토양은 부드럽고 배수가 잘 되는 사질토양이 좋다.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알뿌리가 썩게 되기 쉽다. 보수력과 배수력을 높이기 위해 부엽토, 퇴비, 톱밥 등 자연유기물을 충분히 섞어주면 다음해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다.

· 심는 방법

토양의 양분을 더해주기 위해 퇴비나 유기물을 식재전에 섞어 주면 좋다. 구근을 심는 구덩이의 깊이는 구근의 크기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의 깊이가 적당하다. 구근의 방향은 알뿌리의 뾰족한 방향이 위를 향하게 심는다. 심는 간격은 일반적으로 구근의 2~3배 폭 또는 10~12cm 정도가 적당하다. 구근식재후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봄이 왔 습 니 다 !!

가을에 심는 봄 꽃!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크로커스, 스노우드롭, 아네모네

아름다운 튤립, 수선, 무스카리, 알리움, 크로커스, 스노우드롭, 아네모네 이 모든 봄꽃은 가을에 심어야 합니다. 가을에 심는 구근 식물들은 기존의 아생화, 화단, 꽃잔디, 화단, 잔디밭 등 어떤 적용이 있어도 심을 수 있습니다.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은 네덜란드 직수입 품목들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우량한 구근(모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구입문의 **우리꽃**
전화: 031-634-7990 010-9107-7991

품 목	단 가	식재수/m ²	식재깊이/cm
튤립	350	30-50	8-10
수선화	600	30-50	8-10
무스카리	300	80-100	5
알리움 기간티움	3000	9-10	12-15

※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경에 도착합니다.



‘우리꽃’은 기존의 단순했던 식재기법에서 탈피하여 지금까지 국내에 혼합식재, ARI가든, 혼식식재 등 조화류의 새로운 식재기법을 도입 또는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왔다. 특히 ARI가든은 ‘우리꽃’만의 암석가든 특화공법(특허 제10-1036741호)으로 일반적인 암석가든과는 차별이 되는 우리자연의 선과 맛을 살려 새롭게 정원에 녹여낸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보는 암석가든과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밝은 색의 돌과 둥근형태의 바위, 다양한 식물배치의 효과적 적용으로 연중 새롭고 아름다운 조경테마로 이미 자리잡아 가고 있다.

처음에는 골프장을 위주로 시공이 되었고 점점 지자체의 테마공원, 교통철 등에 확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호에서는 골프장내 전 홀에 걸쳐 ARI가든을 전체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론 겨울까지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라데나 골프장의 ARI가든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하고 와서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한다.

경춘국도를 따라 춘천의 입구에 자리잡은 라데나 골프장은 1990년에 개장하였으며 30여개의 ARI가든이 주변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골프장이다.



사진이 잘 보이는 장소에 맞게 조성한 ARI가든이 소나무와 잘 어울린다.



가을을 맞아 조만가가 잘 정돈되었고 넓게 퍼진 눈향과 꽃잔디는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해준다.

ARI가든의 첫 작품은 2005년 4월에 시작되었다. 홀과 홀이 연결되는 곳, 그늘집 앞 등 총 4곳에 시공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매년 늘려가 약 10년이 지난 지금은 클럽하우스 화단을 시작으로 그늘집 앞, 고객이 쉬어가는 장소로 쉬면서 시선이 주로 머무는 곳, 카트도로 사이에 교통섬식으로 만들어진 자리 등 30곳이 ARI가든으로 조성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경관을 보여준다. ARI가든에는 약 70여종의 식물과 돌이 과학적으로 배치되어 고산의 독립된 섬과 같은 공간(Alpine Rock Island)을 새롭게 연출하여 봄부터 겨울까지도 아름다운 자연으로 태어나게 하고 있다. 특히 식물 하나하나의 특성이 잘 나타나 계절에 따른 고급스런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준다.



꽃백합이 ARI가든 사이에 혼성식재되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고객들이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도록 장원가운대로 침목 보형로 설치

특히 라데나골프장의 경우 ARI가든에 조형소나무를 잘 어울리게 배치하였고 추식구근인 불림과 춘식구근인 꽃백합을 사이사이에 식재하여 이른 봄과 여름에 고객들에게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공할 때 이용하는 부자재인 G커버와 그린리퍼는 보습작용을 하여 건조에 대한 내성이 강해지고 땅에 떨어져 있는 잡초의 종자발아를 억제시켜 잡초도 번번하지 않아 관리가 수월해 지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시기별로 커밍작업만 잘 해준다면 관리가 용이한 식재공법이다.

라데나 골프장은 하나의 테마로 전 홀의 정원을 조성한 대표적인 골프장으로 이제는 ARI가든의 명소로 자리잡았고 그동안 설계회사 등 많은 곳에서 견학코스로 다녀가기도 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식재기법의 우수함과 아울러 코스관리 담당자의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 한 편이 탄생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본다.



현장에 방문한 '우리꽃' 직원들과 코스관리부 김득환 부장(2014년 9월4일)



위쪽 마사를 이용한 세미암석가든



소나무 아래 에기세일로로 피복하여 이끼 같은 질감을 연출

고급 주택정원을 꽃의 정원으로

우리는 삶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강과 여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생활을 꿈꾼다. 이번호에는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고급주택으로서 나만을 위한 휴식 공간, 힐링공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의 리모델링 설계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설계에 맞추어 조화류 식재지에 디자인 한 모습



고 외곽적으로 소나무를 비롯한 상록의 교목과 철쭉 등의 관목이 정원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은 있으나 단조로운 관목식재와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하부의 빈공간이 많아 새롭게 계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였다.

설계방향은 철쭉 등 관목 일부와 반송을 이식하고 잔디밭을 정비하여 사람의 동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조화류를 식재할 수 있는 약 200㎡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본적으로 식재공간은 기존 관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혼합식재와 혼성식재를 도입하였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지쪽은 약 50여종의 수종으로 식물의 상호관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로 더욱 아름답고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장기간화종을 기본으로 계절을 대표하는 숙근초 뿐만 아니라 고급 일년초도 함께 혼합식재에 반영하여 더욱 화려함과 아울러 계절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수목아래 음지쪽은 상록성인 수호초를 중심으로 잎의 질감이 좋은 호스타, 대사초와 꽃이 좋은 아스틸베, 붉은잎동자꽃 등이 반영되었다. 건물 뒤쪽 정원의 소나무 아래에는 지면을 피복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을 주기위해 이끼 같은 느낌을 주는 에기세일을 비롯하여 상록잔디파랭이, 완줄무늬대사

초를 구역을 나누어 한 품목씩 적용하였다. 정원 중간에 넓은 곳은 특화될 수 있도록 ARI가든을 도입하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설계를 변경, 굵은 마사를 이용한 세미암석가든이 적용되었다. 관목도 계절감을 주기 위해 일부 이식된 공간에 잎의 색감이 좋은 삼색조팝과 황금조팝을 반영하였다.

완성된 설계를 기반으로 2013년 6월 정원이 완성되었다. 물론 현장상황에 맞게 일부 바뀌어진 부분도 있지만 기본 설계가 의도한 대로 꽃이 살아 숨쉬는 정원으로 리모델링이 시도되었다.

시공 완료후 2개월정도 지나면서 기존의 정원과 새롭게 조화류를 이용한 정원이 어울리며 주택정원은 아름다운 꽃의 정원으로 완성되었다.

설계문의 (주)비화수
T.010.8964.8310 / 031.726.0610

www.urised.co.kr

‘우리꽃’ 홈페이지
조경용 식물 700여종 소개!

‘우리꽃’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든 것은 봄을 위해
조경용 식물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1가지 검색방법, 분류되어 정리된, 설계하러,
관문서, 조경회사 등 조경인들을 현장을 데려다주는
유용한 정보, 쉽게 도구를 되찾고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검색방법 편

검색키
과명 화색 개화기 빛 및 물 상록성 내한성 이용성 판매방식 분류

1. 이름검색
이름을 직접
가입해서 검색
(이름검색 -> 이름검색)

2. 검색키 검색
검색키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종류를 선
별해서 검색
(검색키 -> 검색키)

경관적, 기능적으로 안정된 수직정원의 완성

벽 화 수



단일 주층 벽화수로 조성된 수원시 환경사업소

5년이 지난 지금도 안정적입니다.

〈인천 만월산 벽화수웅변〉



2013년도 1차 시공후 여름 전경



2014년도 2차 시공 후 가을 전경

‘벽화수’는 5년전 새로운 개념의 벽면녹화로 선보이며 남산1호터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벽면을 안정적으로 녹화시키는 수직정원을 선보여왔다. 벽화수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일반적인 패달형이 아니다. 식생부와 구조체가 분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일체가 되는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자체가 수직정원의 핵심기술이다. 인공토양과 섞지 않는 섬유

를 혼합하여 열과 고압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구조체를 만들때 이미 식물(식물을 심는 구멍)을 만들어 트레이묘를 바로 꽃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 그리고 50~60일이 경과되면 식생기반체 전체적으로 식물이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수직정원을 연출하게 된다.

그리고 수직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관수이다. 점적관수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시간을 조절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점적관수의 구멍이 식물의 뿌리에 의해 잘 막힐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근부직포를 이용하여 점적관수를 감싸게 한다. 즉, 벽화수는 방근부직포가 적용된 관수라인(실용신안 20-2010-0003102번)을 사용하고 있다.

영양공급은 관수라인을 통해서 영양양분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완효성비료를 캡슐형태로 간편하게 만들어 1회 공급시 연속하여 1년간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식물은 수직정원에 있어 마지막 소재이다. 식물적용이 잘못되어 생육이 불량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약해지거나 고사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적용해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만큼 수직정원에 맞는 식물적용이 필수적이다. 식물적용에 있어서 우선

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 벽면이라는 환경속에서 생육이 안정해야 하며 특히 겨울의 비관리에도 잘 견뎌야 한다. 그 다음으로 경관적으로도 우수한 소재를 선별해야 한다. 꾸준한 소재발굴로 이제는 수직정원에 맞는 소재적용의 노하우를 정립하였다.

국내에서 많은 업체들이 실외에 적용할 수 있는 벽면녹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벽면에 부착하는 식생기반체의 문제, 관수시스템의 문제, 적용식물의 부적합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설치 후 3년 안에 대부분 원래의 기능을 잃게 된 반면 ‘벽화수’는 이러한 기술이 알맞게 조합되어 5년이 지난 현재도 안정적으로 벽면녹화의 연속성을 기능적, 경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넓혀 갑니다.

남산1호터널, 세종로중앙분리대, 종량구 SH아파트 웅변, 종량나들이공원관리사무소 등 벽화수를 이용한 수직정원 조성은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점차 경기도를 중심으로한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최근에 조성된 수원과 인천의 벽화수 시공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벽화수를 이용하여 2013년 1차로 건물녹화를 하였고 그 효과를 인정하여 올해 봄 2차로 녹화가 진행되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의 사육은 적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조적건물로 건축연수가 꽤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다. 오래된 만큼 여름과 겨울의 열효율도 떨어지고 주위환경과 잘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이런 제한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적용식물 또한 섬기린초의 단일식물 구간과 황금조팝, 바위취, 상록잔디패랭이, 기린초, 맥문동 등 혼합식물 구간으로 나누어 시공하였다.

우선 식물메트릭을 부착할 수 있도록 프레임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건물벽면에 천공(양가)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오래된 건물상태와 조적건물 구조로 인해 천공작업 주변부가 깨져나가는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물 벽면에 천공작업시에는 반드시 방수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자칫 이를 소홀히 했을 때는 건물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완공 후에 보수



세종로 중앙분리대 벽화수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 철저한 방수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햇빛이 잘 드는 쪽에는 섬기린초의 단일수종으로 디자인하였고, 양지와 음지가 섞여 있는 구간에는 5~6가지의 수종을 디자인하여 ‘벽화수’가 설치되었다. 완공 직후 녹색으로 뒤덮힌 벽면을 보고 환경사업소 측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추운 겨울을 지나 변함없이 녹색의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벽화수’에 단일수종을 적용하여 시공하는 예가 처음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봄부터 겨울까지 멋스럽고 완성하게 건축물 벽면을 피복하고 있는 상태를 보니 단일수종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했다. 또한 올해 제6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작품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제6회 인공지반녹화 최우수상 수상

인천은 교육청을 시작으로 인천제계도시축전, 논현동 주공아파트 웅변에 이어 만월산콘크리트 웅벽화화를 작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2차에 걸쳐 완성하였다. 작년에 1차로 전체면적의 약 40%면적을 녹화하였고 효용도 및 만족도가 높아 올해 6월 나머지 면적 모두 ‘벽화수’로 녹화하였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지역이고 연결되는 구간이어서 10여



4년전에 시공된 중앙아파트 웅변, 2014년 9월

가지의 식물을 혼합했던 패턴을 전면적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 지역은 약 300m정도의 구간으로서 삭막한 콘크리트 웅벽은 현재 친환경적인 녹색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유지관리는 전문가에 맞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뛰어난 벽면녹화 시스템이라도 유지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좋은 경관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없다. 많은 관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시스템을 바라지만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시공업체에 연간 유지관리계약을 맺어 경비지원을 해줌으로써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벽면녹화 제품들은 자연친화적이긴 하나 또 하나의 인공구조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는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인공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벽면녹화 사업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내 최초의 정원 잡지

월간

Garden in

- 월간 가든인은 사립잡지가 아닙니다.

- 월간 가든인은 우리 생활속 정원 이야기입니다.

- 월간 가든인은 직접 따라해 볼 수 있는 실용 정원 잡지입니다.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 무통창입금: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문의전화: 031-712-7009

ECHO HOLE SYSTEM(에코홀 시스템) 과학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 모두의 꿈! 콘크리트에 식물을 심는다.



축대용 에코블록 설치직후 모습 3개월 정도 지나면 푸르른 에코축대로 변모한다

인류는 콘크리트를 발명함으로써 인간다워졌다. 물과 바람과 불 그리고 시간을 지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도 콘크리트 숲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도시의 콘크리트 숲은 여름엔 불이되어 인간을 위협했고 겨울은 싸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로부터 인간들은 자연에 대한 갈망이 켜트게 되었다. 푸르름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계절(시간)의 변화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생각!, 우리모두의 꿈! 콘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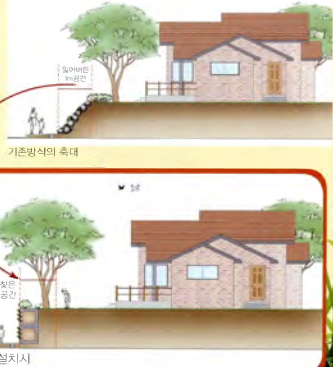
트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는 기술이 개발 되었다. 콘크리트에 직접 식물을 심는 방법이다. 기후가 가장 변화무쌍한 대한민국의 건물외벽 벽면녹화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벽화(주)에서 도시혁명과도 같은 기술을 개발, 특허 등록을 완료 하고 본격적인 도시사냥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우선 콘크리트 축대용 블록과 중앙분리대 및 아름다운 꽃담을 선보이고 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 줍니다! 축대용 에코블록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나라이다. 전국토의 67%를 차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는 평지가 아닌 경사지를 축대를 쌓아 평탄화 하고 건물, 도로 등을 건설한다. 많은 경우 낮은 축대는 바위를 경사지게 쌓는 방식이거나 콘크리트 타설 혹은 블록을 조적하여 쌓는다. 전자는 다양한 모양을 연출할 수 있고 바위와 바위의 틈사이에 관목을 심을 수 있어 녹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 후자는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콘크리트 노출에 의한 경관훼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많은 곳이 바위로 축대를 쌓아올리는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바위로 쌓는 축대방식은 토지가 넓은 곳은 별 문제가 없다. 넓은 곳은 토지의 이용성이 조금은 낮아도 다양한 방식의 디자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 축대를 쌓게 되면 2~3단만 쌓아도 부지의 이용면적이 1~1.5m는 사라지는 것이 단점이다.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는 돌쌓기는 돌을 쌓는 비용을 감안 하지 않더라도 가로세로 33m로 이루어지는 1,000㎡(약 300평)의 토지에 있어 4면을 모두 3단의 돌축대를 쌓게 되면 약 1.2m의 손실이 있게 되어 1.2×33×4=396㎡(48평)가 불용토지가 되어 그만큼 면적이 사라진다.

만약, 서울의 번두리 땅이라 해도 최소 평당 300만원을 기준 하면 1억 4천만원정도의 땅이 사라지



잃어버린 땅을 찾아 드립니다!!

돌 축대를 쌓게 되면 2~3단만 쌓아도 부지의 이용면적이 1~1.5m 사라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직벽을 올리게 되는데 이는 또 하나의 삭막한 도시 경관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모든 고민 끝이다. 축대용 에코블럭이 숨었던 1m를 찾아 드립니다. 좁았던 도로, 보행로 혹은 주차공간을 최소 1m는 넓힐 수 있게 되었다.



될 예정이지만 현재로는 1×1×1m인 규격으로 생산 출시된다. 에코홀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용벽용 블록처럼 쌓아 올려 흙을 채워 넣고 형성된 에코홀에 꽃이나 관목 등을 심어 마무리 하면 끝이다. 이 에코홀의 비밀은 경사를 이루는 구멍에 있다. 에코홀의 역할은 식물이 자



게 되어 이용면적이 감소된다. 사면을 모두 단 쌓기 하는 경우는 없다하더라도 최소 한 면 혹은 두면의 축대만 쌓아도 많은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도로를 낸다거나 보행로가 좁은 도시의 공간에는 더욱 중요한 관건이다.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직벽을 올리게 되는 데 이는 또 하나의 삭막한 도시 경관을 노출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모든 고민 끝이다. 축대용 에코블럭이 숨었던 1m를 찾아 드립니다. 좁았던 도로, 보행로 혹은 주차공간을 최소 1m는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축대용 에코블럭은 다양한 사이즈로 출시

라는 식화로 되지만 토양속의 수분이 과할 때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안에 있는 토양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토양을 현격하게 낮추는 역할(경기판 재연구조 실험데이터 참조)을 한다. 간단하게 플랜 카드에 공기구멍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축대용 에코블럭은 아래가 터져있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아스팔트 위나 콘크리트 위에서는 물 공급이 필요하게 된다.

중앙분리대, 가벽, 꽃담 그리고 화분 역할까지 다양하게 이용한다.

물 줄 걱정이 필요 없는 에코웬스

에코웬스는 꽃담, 중앙 분리대나 피복지 안전경계 화단, 불라드, 화분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간단하게 현장 반입하여 토양의 심지역할과 저수통을 구분하는 저수관을 넣고 흙 채움한 후 일정간격으로 구멍이 있는 에코홀에 다양

한 식물을 심고 위로 뚫린 곳에는 작은 교목이나 관목 혹은 야생화 등을 심고 물을 충분히 주는 것만으로 끝! 그리고 약간의 물을 저수통에 채우기만 하면 최소 3개월은 걱정필요 없다. 물론 적절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면 연중 걱정없다.

만약 측면에는 관목을 심어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면 상단에는 지하고가 높은 야고목을 포인트로 식재하고 그 아래는 야생화와 일년초를 복합 식재하는 방법도 좋고 맥문동 등의 한 식물로 깔끔하게 처리 하는 방법도 추천해 볼만 하다.

이제 콘크리트도 빠른 녹화가 가능하다. 콘크리트 용벽이나 축대가 하나의 정원으로 오히려 많은 경관적 장점을 가진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에 비해 비용은 아주 최소화 된다.

지금은 생산량의 규모가 한정적이다. 때문에 빠른 주문과 예약은 필수 이다. 가격은 상차도 기존 축대용 에코블럭은 개당 35만원 선이고 에코웬스는 그 보다 약간 비싼 40만원 선이다.

제물포의 (주)벽화사
/ 전화 031.634.0326~8 / 010.9517.0610

광장, 도로가, 계단, 주차장, 경계용 신개념 실용 화분!

에코웬스(화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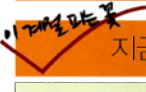
입체적 디자인이 가능한 신개념의 아름다운 노출 콘크리트에 식물을 직접 심을 수 있는 화분입니다. 엔틱과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가능합니다.



구입문의 벽화사(주)
전화 031.634.0326~8 010.9517.0610

이 계절 피는 꽃, 심는 꽃

이 계절 피는 꽃



지금 식재하여 가을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초화류를 소개합니다.

가을 행사용으로 안성맞춤소재 아스타(Aster)

1. 왜성아스타 (dumosus)종

이들은 일성적으로 원예화된 아스타종으로 대체로 키가 작고 꽃의 수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 품종은 초여름에 1차 개화를 하고 다시 가을에 2차 개화하는 특성이 있어 많이 선호한다. 이들은 포기를 형성하는 종으로 혼합식재 혹은 비관리지역에 대면적 군식용으로도 좋다.



2. 고성아스타(novi)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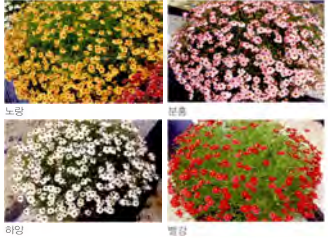
이들 종은 대체로 키가 큰 종류로 개화가 늦다. 품종에 따라 화색이 다양하며 가을을 대표하는 화종이다. 절화용으로도 쓰이며 대체로 생육이 강건하지만 키가 1m이상 자라 쓰러지기 쉬우므로 6월에 한번 커팅을 해주는 것이 좋다. 대면적 식재를 하면 가을 어린 품종보다도 고급스럽고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다.



코레우리(Coreuri) ‘우리꽃’이 개발한 로얄티 품종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품종으로 크게 2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로세아(rosea)계통은 내한성이 약하고 버티실라타(verticillata)계통은 내한성이 매우 강하다. 두 품목군 모두 양지성 식물로 5월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하고 품종별로 색상이 다양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꽃’이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로얄티를 받고 있는 품종이다. 참고적으로 코레우리는 Coreopsis의 ‘우리꽃’이 개발한 품종의 국내 원예종 이름으로 명명된 식물이며 ‘우리꽃’의 허락없이 무단증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1. 로세아(rosea) 계통



2. 버티실라타(verticillata) 계통



장기개화의 대표종 가우라 베이비(Gaura)

5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개화하는 인기있는 품종으로 이제는 도로가 군식용으로 필수 품목이 되었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며 건조한 곳이나 혹은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 ‘우리꽃’이 개발하여 보급중인 가우라 베이비 시리즈는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꽃이 많이 매달리고 ‘핑크’, ‘레드’ 품종은 화색이 매우 고급스럽고 ‘골든트리’ 품종은 맑은 하얀색의 꽃과 노란색 줄기가 잘 조화를 이룬다.



큰쟁의비름 만추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꽃을 피우는 적립형의 키 큰 세엽으로 꽃이 진후에도 적색의 꼬투리가 그대로 남아 오랫동안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 생육이 강건하여 건조지, 옥상정원 등에 잘 적응하지만 혼합식재에도 자주 이용된다. 특히 식재 후 23년만 경과하면 매우 크고 좋은 포기를 형성하여 포인트식물로도 좋고 ARI가든에는 빠질 수 없는 필수품종이다.

상록잔디패랭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건조에 매우 강하고 겨울에는 상록성으로 건조한 기후에 알맞다. 혼합식재시 앞라인에 적용하면 항상 꽃이 있는 정원연출이 가능하다. 식물품이 안정적이고 다화성이어서 분화용으로도 매우 좋다.

충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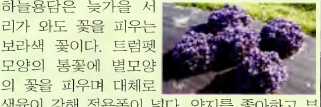
우리나라 토종식물로 잎에 향기가 진하고 건조에 강한 식물이다. 내열, 내건성 식물로 바닷가의 공

원이나 암석지 식재, 석축용으로 적용하면 좋다. 그리고 가을꽃이 필요한 곳이라면 좋은 소재이다. ‘우리꽃’에서는 분홍색과 흰색의 새로운 품종을 앞으로 선보일 것이다.



하늘응답

하늘응답은 늦가을 서리가 와도 꽃을 피우는 보라색 꽃이다. 트럼펫 모양의 동꽃에 별모양의 꽃을 피우며 대체로 생육이 강해 적용폭이 넓다. 양지를 좋아하고 부식토가 많은 축축한 토양을 좋아하나 반음지 혹은 일반 습윤지에서 더 생육이 좋다.



이 계절 심는 꽃



지금 식재해아만 내년 봄, 여름에 풍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초화류를 소개합니다.

알게밀라

연두색의 맑은 꽃은 고급 이미지를 주고 둥근형태의 잎 자체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경계나 라인식물로 자주 사용되면 수변에도 잘 어울리는 식물이다. 너무 건조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한다.



디기탈리스

봄 대형의 꽃은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 매우 유리하다. 키가 크므로 정원의 뒷출식물, 공원이나 도로가의 혹은 전원 주택의 가장자리에도 좋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 더욱 효과적이다.



메카나매발톱

봄에 꽃을 피우는 대표수종으로 다양한 색상과 꽃은 매우 화려하다.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이른 봄 식재시 줄기가 불랜신 두께이상이라면 꽃을 피운다. 그렇기에 가을식재를 해야 다음해 봄에 풍성한 꽃을 보는데 유리하다.



속근왜성천궁

꽃이 5월부터 장기간 개화하므로 혼합식재에 적용하면 좋다. 화색이 매우 강렬하여 화려한 연출을 원할 때 유리한 품종으로 추천한다.



의할 사항은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심어야 여름장마에 잘 견딜 수 있다.

스텔라원추리

5월부터 가을까지 계속 개화하는 사계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키가 작은 원추리. 장기개화하므로 도로변, 공원 등에 혼합식재, 군식 모두 잘 어울리고 습기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여 수변식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튤립 파스텔

파스텔톤의 화색이 매우 고급스럽고 특히 건조에

강해 도로가 등 건조지에 연중개화가 가능하다. 한국적 건조 양지 기후에 매우 알맞고 1차 개화후 꽃이 질때쯤 커팅을 해주어야 좋은 꽃을 연속해서 볼 수 있다.



수레동자

키가 큰 통자꽃으로 주먹형의 주황색꽃은 주변을 밝게 해준다. 대체로 양지를 선호하지만 활엽수 반음지에서 가능하며 간혹 여름 건조가 심한 경우 낙엽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군식으로 심기보다는 여름꽃인 꽃백합, 리아트리스 등과 혼식식재하면 더욱 좋다.



꼬리풀 로켓

진한 분홍색의 키가 작은 꼬리풀 품종으로 다른 꼬리풀 품종보다 화려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봄에 1차 개화 후 커팅을 하면 가을에 2차개화를 볼 수 있다. 장기개화형으로 대면적군식은 물론 혼합식재의 필수품목이다.



펜스테몬 상록홍염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식물로 하양색의 화색은 밝고 화려해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군식, ARI가든까지 다양하게 이용가능하다. 잎이 적색의 상록성 식물로 꽃이 없는 시기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뛰어나다.



에키나 레인보우

신품종 에키나로 키가 작고 화색이 매우 다양하게 혼합되어 정원식물로도 좋은 소재이다.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고 생육이 강해 양지, 약간의 음지에도 잘 자란다. 고급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스타치스

잎과 꽃이 모두 좋은 식물로 ARI가든은 물론 혼합식재에도 좋다. 향이 있는 식물로 벌과 나비가 많이

이 계절 피는 꽃, 심는 꽃

금남화 초롱

이른 봄 피어나는 금남화 신품종으로 습기가 있는 축축한 토양을 좋아한다. 활엽수지에 가을식물과 혼식식재하거나 ARI가든에 봄꽃으로 적용해도 좋다. 분화용으로도 좋은 소재이다.



무늬새

6월경 이삭을 맺어 그라스종 빨리 개화하는 종으로 가을에 식재해 주변이듬해 더욱 좋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수직형의 안정된 식물품은 열식하거나 포인트식물로도 좋다. 7-8월에 줄기가 말라 가을의 역세와도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무늬꽃창포

잎에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무늬꽃창포.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이며 수변식물로도 좋지 않다. 혼합식재에도 적용가능하다. 또한 꽃피는 시기가 한정되어서 여름, 가을식물과 대군락 혼식식재도 좋다.



화동물사초

블루색의 시원한 고급 수종식물로 수심 20cm까지 생육이 가능하며 잎의 질감이 뛰어나고 생육이 강하여 물속에 군식하면 좋다. 큰고랭이 등 다른 수종식물과 조화를 잘 이루어 식재한다면 풍성한 수변경관 연출이 가능하다.



발레리안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며 특히 활엽수림의 가장자리 적용하면 좋다. 꽃이 무리지어 피어 날때는 나비가 잘 찾는 꽃이기도 하다. 약간의 습윤지에도 생육이 좋아 계류주변 식재에도 좋으나 너무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계절 피는 꽃, 심는 꽃

음식작물

음식물

최근들어 건물아래, 수목하부 등 음지지역의 식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지라는 빛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 적응하면서도 잎이 좋은 식물을 선택하여 조화롭게 배치하면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대부분 내린 불부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식재를 해주어야 한다. 음지정원의 필수적인 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주가(Ajuga)



환엽수 음지에 효과적이고 보라색의 봄꽃은 음지를 밝게 해준다. 약간의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하며 건조에는 약하다. 적갈색의 잎 자체적으로 관상 가치가 있다. 종류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호스타(Hosta)



음지조경의 대표종으로 수림아래 군락지 조성을 하면 좋다. 토질을 가리지 않으나 부식질 토양에서 생육이 더욱 왕성하며 음지 뿐만 아니라 생태 연못 조성시 수변식물로도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크기와 모양, 질감과 색상 등이 매우 다양한 잎의 관상 가치가 음지조경의 고급화를 선도한다.

대사초(Carex)



대사초는 일반적으 약간의 습기를 좋아하지만 건조에도 강하다. 특히 품종에 따라 무늬가 다양하고 이 들만으로도 문양 연출이 가능하고 침입성이 없어 안전하다. 소나무정원의 하부 건조지에도 적용해도 좋다.

상록양지꽃

겨울상록성의 포복형 지 피식물로 환엽수림의 음지에서 잘 자란다. 질감이 좋고 잎에 광택이 있어 지피용으로 효과적이고 이른 봄 노란색의 꽃은 양지꽃과 유사하고 건조에도 강하다.



무늬맥문동



꽃과 잎이 모두 좋은 상록성의 음지식물로 일반 맥문동과 함께 군식하거나 라인식재시 이용하면 좋다. 생육은 강건하나 겨울바람이 심하지 않는 곳에서 생육이 양호하다.

평의다리

음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포기종으로 포인트 식물로 좋고 대체로 비옥한 물기가 있는 토양을 좋아한다. 은평의다리의 경우 6월부터 하얀 꽃무리를 형성하며 화사함을 연출한다. 겨울철 다른 절기에도 관상 가치가 있다.



아스틸베



꽃이 아름다워 수변의 대표적인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꽃은 촘촘한 형태를 이루고 품종에 따라 화색이 다양하다. 수변의 그늘진 곳에 식재하면 효과적이다.

무늬동굴레

소나무 등의 침엽수림하에서 약간의 햇빛과 습도만 유지되면 생육이 양호하다. 숲 가장자리에 길게 군식하면 잎에 무늬가 있어 정갈함과 더불어 좋은 질감의 연출이 가능하다.



'우리꽃' 종자소개



우리꽃은 기능성과 경관성을

겸비한 다양한 종자를 보급합니다!!



초창기 법면녹화시 양잔디, 싸리, 비수리 등 녹화주의 초종에서 점점 꽃을 볼 수 있는 개념의 녹화로 패권이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야생화 종자의 종류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꽃'은 많은 종류의 야생화종자를 발굴, 시장에 선보여 종자소재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고가의 야생화 종자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더불어 '우리꽃'이 개발한 우리법면혼합종시리즈는 대면적 경관조성 소재로 큰 인기를 누리며 출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파종한지 10여년이 지나도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뛰어난 효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 양귀비를 처음으로 조경현

장에 도입하여 포천부식물원 양귀비축제를 비롯하여 파주시페리꽃축제, 함양한들꽃축제 등을 이끌며 각 식물원, 지자체 축제현장에 양귀비 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도 황금, 말뱅이나물, 배초향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경용종자를 발굴,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발아율이 우수한 양질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에 도입하여 포천부식물원 양귀비축제를 비롯하여 파주시페리꽃축제, 함양한들꽃축제 등을 이끌며 각 식물원, 지자체 축제현장에 양귀비 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도 황금, 말뱅이나물, 배초향 등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조경용종자를 발굴,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발아율이 우수한 양질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우리법면 혼합종

우리법면 3호

우리법면 4호



>> 야생화 종자



>> 추파용 및 일년생 종자



세계 최초의 황홀한 분홍색 코레우리

< 코레우리 미리 >

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 이름다운 꽃은 노랑으로 시작해 분홍으로 피어납니다.
- 주목정원, 도로변, 식물원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본 상품은 우리꽃이 개발한 신종종으로 무단 중식,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www.uriseed.com

코레우리 판매가격
4치포트 2,000원 / 6치(화분) 10,000원

우리꽃 전화. 031-634-7990
010-3622-1945

우리꽃 교육안내 EDUCATION

가을학기 주말 특강반

"정원 디자인"이 대세인 시대
실연 되는 정원의 시대는 지났다. 식물의 특징, 식물의 분포, 정원의 알이념
"식재의 디자인 마스터"로 환경을 살리는 너만의 정원
정원문화의 주도하는 '가든조' - '주말 특강반'

프로그램명	일자	시간	비고
건강한 정원디자인	11월 주말(토)	10:00~15:00	2회
구근의 모든것	11월 평일	10:00~15:00	1회
우리 자생식물과 예술	9~11월	10:00~13:00	1~2회 예정

가드너 김지율

전 진보수목원 근무 /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구
영국 RHS Garden, Wi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오도

동무학교생태농업전문교사
일본 東京大學園藝系造園科에서 학단설계 전공
전 961식물원, 전라북도수목원 근무

* 각 프로그램 인원은 20~25명 내외로 선착순 신청되며 수강료는 150,000원입니다.
* 프로그램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blog.naver.com/gardens777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가든조아 전화 031-712-7009 010-8636-2664



정원과 품종의 가이드 매거진 우리넷 복간

조경인들을 위한 정보소식지로 2003년 창간되어 큰 호응을 받아 왔던 '우리넷'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식물소재에 대한 새로운 안내, 다양한 정원 조성 기법, 화훼전시장의 시장동향과 조경 트렌드 등 조경인들이 궁금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 감성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알고 계시는 고급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집실로 연락하십시오. 글로 직접 기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편집자 : 010-3622-1945

정원의 필수소재, 추식구근의 대표종 튤립



튤립은 세계최초로 '꽃 가게에서 판매된 꽃'이자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튤립 루기 열풍'을 일으킨 주

인공이다. 네덜란드 화가들에게 창조적 자극을 안겨 준 이 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화훼 축제에서 변함없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식물, 역사를 뒤집다/문명을 이끈 50가지 식물' 중에서

쌈채소와 조경소재로도 유용한 당귀



당귀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는 약용 식물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은은한 향과 씹사름한 맛을

가지고 있어 연한 당귀 잎은 쌈채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잎이 크고 날개를 짝 편듯한 모습은 시원한 느낌을 주며 고급스런 자주색 꽃은 앞으로 조경소재로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식물이 크고 음지에도 잘 적응하여 음지의 포인티식물 또는 잎과 뿌리에서 나오는 향이 좋아 허브정원을 만들 때 이용해도 좋을 듯 싶다. 우리의 정원 한곳에 심어 어린 잎은 쌈채소로, 나중에는 아름다운 정원식물로 감상해보면 어떨까 한다.

사진출처 : 아미타 수목야생 채취후보 포인티 식물로 식재되어진 당귀

가을의 풍경을 지켜드립니다. 가을에 쓰러지지 않는 억새 연출

억새는 가을의 대표적인 식물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억새는 한창 좋아 할 가을에 키가 커서 종종 쓰러져 아쉬움을 달래야 하는 경험이 많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날려보낼 간편한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생장조절제 '레스모'를 추천한다. 6월중순경 억새 전면에 살포하면 생장 억제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키가 알맞게 자라 가을에도 쓰러지지 않는 짙푸른 가을 억새를 경험할 수 있다.



—라네다콜프장 김득환 코스관리부장

가을에 파종해야 효과 좋은 양귀비

재배관리법

1. 추파용종자류 11월까지 파종해준다.
2. 파종 후 흙을 덮지 말고 뿌린 씨를 살짝 눌러준다.
3.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것이라야 효과적이다.
4. 이듬해 4월 중순경에 일정한 간격(30~40cm)으로 솟아주면 좋다.
5. 봄, 연한 잎으로 씹거나 절절이를 해먹을 수 있다.
6. 생육이 약해지면 복합비료를 뿌려준다.
7. 축제를 하기 위한 대면적 재배의 경우 품종과 토양, 자연환경에 따라 생육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리소문없이 파고들어오는 대식가 민달팽이 퇴치법



민달팽이는 고온다습한 6~9월사이애 많이 발생한다. 낮에는 흙 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야행성이다. 주로 식물의 어린 묘와 새순의 피해를 크고 번식력이 강해 한 마릿당 약 300여개의 알을 낳는다.

퇴치법 1. 농이와 낫은 그릇에 맥주 50ml와 담배가래 정도를 가루를 섞어두면 밤 사이에 민달팽이가 유인되어 빠져 죽는다.

퇴치법 2. 넓은 면적에서는 개시료+살망+살충제를 혼합하여 빈 공간에 3~5알 정도 뿌려준다. 살충제만 살포하면 민달팽이가 흡수되어 숨어버리기 때문에 맛있는 사료와 살망으로 유인하여 박멸한다.

—'가든인 2014년 8월호' 중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적의 선택 선택적 제초제 이용법

아직도 현장에서 화본과 제초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사용하는 기가 두터워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린다. 화본과 제초제는 선택적제초제로 바랭이, 독새풀, 피 등 1년생 화본과만 선택적으로 고사시키는 농약이다. 다시 말하면 화본과가 아닌 식물이 식재되었거나 파종된 곳에 1년생 화본과 잡초들이 많이 발생되었을 때 이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그러면 원래 식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화본과 잡초만 선택적으로 고사시켜 제초인건비를 절약시킬 수 있다.



약 제 뉴원씨드/한국삼광(주)
희석배액 물20리터 / 약제40~60
시 기 잡초의 잎이 3~4엽정도 나왔을 때
효 과 이형성 제초제로서 약제 살포후 일주일 정도 지나야 힘이 붉게 되면서 고사가 진행된다.

Book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타:
부처트가든의 한국인
정원사 이야기



캐나다의 부처트가든은 한 해 100만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 명소이다. 60여명의 정원사 중 한 명 한 명의 한국인이 바로 책의 저자 박상현. 마흔의 나이를 맞으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보고 싶었던 그는 이국땅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속에서 일하고 싶어 부처트가든을 선택했고 '절실한 눈빛' 하나로 결국 이곳의 정원사로 채용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관광객이 아닌 정원사의 시선으로, 어떤 가이드북에서도 볼 수 없는 부처트가든의 생생한 풍경과 그 안에 숨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박상현 저/서/2012년 5월출간/304쪽

아스타 시리즈

www.uriseed.com

가을을 화려하게

가을행사용으로 더할 나위 없는 소재입니다

가을특가

3치포트 4,200원 → **700원**
식상매트 42,000원 → **10,000원**



아스타 알바

아스타 화이트

전화, 031-634-7990 010-9107-7991

